

수출규제 관련 중국동향(12.10~12)

1. 한·중·일 정상 회담 관련

□ [언론 동향]

- 관찰자망(观察者网)은 12월 24일 중국 쓰촨 청두(成都)에서 제8차 한·중·일 정상 회담이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¹⁾
 - o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중 정상 간 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“면밀히 소통하고 있다”고 답함.
 - o 매체는 중요한 이웃 국가이자 협력 파트너인 한국과 공통 관심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소통을 기대한다고 보도
- 환구시보(环球时报)는 한·일 정상이 한·중·일 정상회담 참가를 위해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중국 쓰촨 청두(成都)를 방문할 것이며, 동 기간 동안 한·일 정상회담도 개최될 예정이라고 보도²⁾
 - o 한·일 정상회담에서는 對한국 수출제한 조치 철회와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, 무역 마찰의 근본 원인(강제 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)에 대한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인용 보도
 - o 양국이 성실하게 회담에 임한다면 무역 갈등은 단시일 내 해결될 것이나 일본이 수출제한 조치를 계속해서 강행한다면 양국 관계는 더 빠르게 악화될 것이라는 한국 매체를 인용 보도(한겨레)

2. 기타

□ [언론 동향]

1) 「中日韩领导人会议24日在成都举行」, 『观察者网』(2019. 12. 10)

2) 「韩日领导人协调在华会晤 舆论关注两国军情协定及贸易摩擦解决」, 『环球时报』(2019. 12. 12)

- 환구망(环球网)은 12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제7차 한·일 국장급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개최될 것이라고 보도³⁾
 - o 회담에서는 민감 기술 관리 상황과 해결과제, 양국 수출 관리 시스템의 운용 방법 및 향후 진행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인용 보도
 - o 또한 한국 측은 일본 측에 수출제한 조치와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나, 일본 측은 이 문제가 본 회의의 의제가 아니라며 연내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고 인용 보도
- 국제재선(国际在线)은 12월 15~16일 기간 중 스페인에서 한·일 외교부 장관 간 회담이 진행될 것이며 강제 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인용 보도⁴⁾
 - o 일본 외무상은 배상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 행위라며 정정을 요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 제시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
 - o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문제와 관련해 일본과 계속해서 교착상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

3) 「韩日将举行出口政策局长级对话 问题能否解决引关注」, 『环球网』(2019. 12. 11)

4) 「日韩外长拟于西班牙进行会谈 劳工问题或仍是焦点」, 『国际在线』(2019. 12. 12)